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

김은정(한국외국어대학교)

본 토론문에서는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지화 관점에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1. 현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 현황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몇 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53,695명에 이르렀다.¹⁾ 이는 올림픽, 월드컵 등의 각종 국제 행사 개최, 한류 열풍의 확산,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 정부 및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 등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설 기관을 신설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여 곳에 불과하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은 2005년 대략 80개, 2019년에는 244개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²⁾ 사실상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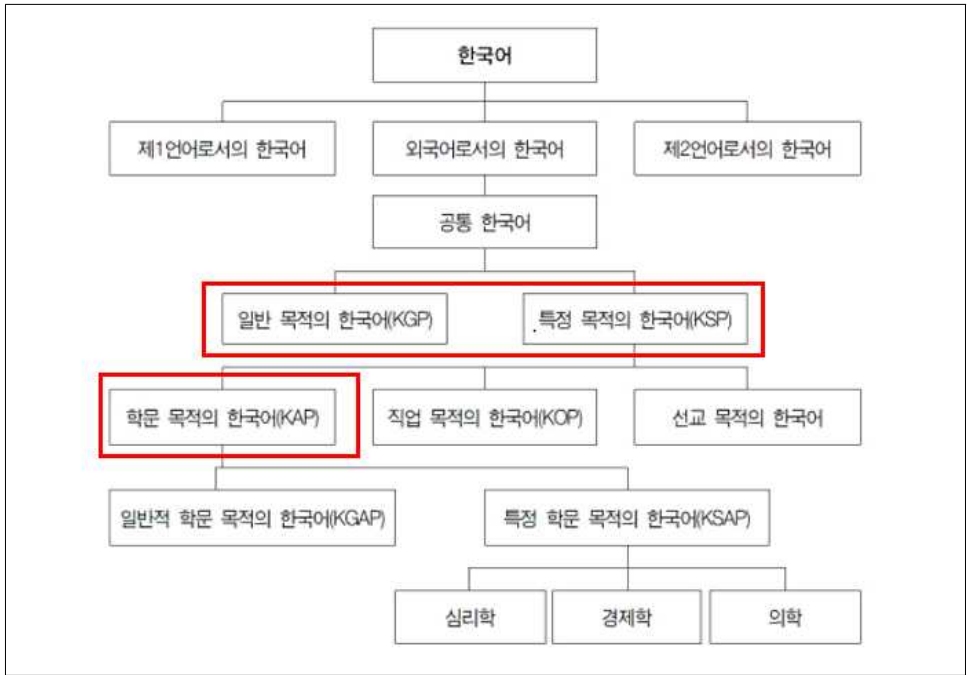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은 1년에 4학기, 학기당 10주, 200시간으로 운영되는 정규과정을 채택하고 있는데³⁾ 이는 이러한 시스템이 단계별 수업 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한국어 학습을 휴지 없이 지속할 수 있으며 단기간 학습 목표 달성에 학습자의 동기 부여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어 교재 또한 한국어 교육 기관의 운영 방식에 맞춰 단계별 200시간의 내용으로 개발되어 있고, 각 단계별 내용도 대부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수요목이 설계되어 있다.

최정순(2006)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크게 일반 목적의 한국어(KGP)와 특정 목적의 한국어(KSP)로 구분하고, 특정 목적의 한국어(KSP)의 하위 범주로 학문 목적의 한국어(KAP)를 위치시켰으며, 이를 다시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KGAP)와 특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KSAP)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일반 목적의 한국어와 특정 목적의 한국어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두 한국어가 동시에 교수-학습되다가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목적 한국어가 우세해지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분류에 의하면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초급일 경우 일반 목적의 한국어(KGP)에 해당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주요 학습 목표인 중급 이상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의 한국어(KSP), 그 중에서도 학문 목적의 한국어(KAP)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내 유입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목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임을 감안하면 현재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방향은 학문 목적 한국에(KAP)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교육부 (2020.4.1 기준)

2)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경력 인정 기관, 국립국어원 (2019.8. 기준)

3) 일부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정규과정을 1년 6학기/학기당 8주, 또는 1년 2학기/학기당 20주를 운영하나 1년 총 교육시간은 800시간으로 모두 동일하다.



<그림1> 최정순(2006)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하위 분류

2. 다양한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해외 현지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과 국내 대학 부설 기관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교육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가 아닌 이상 해외 현지에서 주 20시간 이상의 집중 교육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학문 목적 한국어라기 보다는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1학기 200시간의 정규과정과 함께 최대 4주, 80시간 이하의 단기 연수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단기/특별과정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수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체득하고자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에 참여한다. 따라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단기/특별과정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언어 수업은 정규과정에 비해 비중이 적고, 대신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수업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해외 현지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목적과 국내 기관의 단기/특별과정을 지원하는 학습자의 학습 의도는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현지 대학 강좌의 교육 시수와 국내 기관 단기/특별과정의 교육 시수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반 목적 한국어에 맞춘 다양한 단기/특별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해외 현지에서도 그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 수업 개발의 필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목적 학습자들은 한국어 지식 학습 못지않게 한국문화 학습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습자들의 문화 학습에 대한 요구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도 상당수 발표된 바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수업’이란 한국 문화와 관련된 교육 전체를 총망라한 폭넓은 의미로,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 요소를 주제로 교실 안에서 수업이 진행되거나 교실 밖에서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학기마다 1~2회 문화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⁴⁾ 그러나 한국 문화체험 수업은 단순히 학교 밖에서 하는 일회성 체험학습 또는 소풍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회성, 유희적인 측면을 강조되는 문화체험 수업은 교육적 의미가 낮으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그 효과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수업의 활동 자체에 비중을 두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업 전-문화수업 중-수업 후’단계를 바탕으로 문화수업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문화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관의 예산, 학습자의 선호도, 행정 업무, 체험 시간, 거리, 계절 등의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한국 문화체험 수업은 한국 언어문화 교육 과정 안의 교육이기에 반드시 교과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문화체험 수업’과 관련된 수업의 특성, 수업목표, 수업내용 등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주로 진행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중심의 문화수업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문화체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상호문화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

현재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와 연계하여 문화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즉 문화 항목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각 단원의 주제 내에서 듣기 지문이나 읽기 텍스트, 말하기 활동 등의 영역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단원의 주제와 연계된 문화교육 항목이 ‘문화 팁’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여러 기관 교재의 ‘문화 팁’ 부분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부분이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학습내용이 아니기 때문인지 해당 한국문화 요소에 대한 일방적 설명 위주로, 학습자 언어 수준에 맞는 한국어로 기술되거나 일반적 설명에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양정아(2020:51)는 상호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습자가 각각의 사회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대화와 소통이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한다. 문화의 차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모든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점에서 문화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도 역시 이러한 상호문화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각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므로 현 한국어 교재의 일방적 설명 위주의 ‘한국 문화 팁’ 부분을 상호문화적 입장에서 재

4)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문화체험 수업은 체험 중심 학습으로 기관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구체적 체험 내용이 결정되었으나 전체적 내용을 보면 한국 전통문화 체험(인장 만들기, 전통 공예 만들기, 한복 체험, 다도, 태권, 사물놀이 및 판소리 배우기, 한옥 견학 등), 고궁 및 박물관, 유적지 답사, 놀이 문화 체험(놀이동산), 한국 요리 체험, 도자기 체험, 한국 공연 관람(난타, 비빔 등), 민속촌 견학 등이 있다.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교사도 한국 문화 정보 제공 시 단순히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설명이 아니라 상호문화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진정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문화에 대한 상호문화적인 접근 방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한국어 언어문화 교육기관에서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본 토론문에서는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해외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현재 치중되어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KAP)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목적 한국어(KGP) 교육과정, 단기 및 특별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해외 현지에서도 그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목적 교육과정 안에는 교과 과정과 연계가 가능한 ‘한국 문화체험 수업’을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 안에 들어있는 ‘한국 문화 팁’ 부분을 상호문화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이 아시아 33개국, 유럽 42개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 학습자 분포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므로(강승혜, 2020:23)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 요인 관련 연구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현지의 한국어교육 현장의 질적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승혜(2020), 「한국어교육 60년을 통해 본 한국어 학습자의 변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집,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학당.
- 김서형(2009), 「한국어 수행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연구-학부 유학생을 위한 교양 과목 개설 요구 조사」, 한국어학 44권, 한국어학회.
- 김예슬(2017),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용현(2020),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분석」, 『이중언어학』 80, 이중언어학회.
- 김정숙·이정희(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새국어생활』 28(2), 국립국어원.
- 박경자(2021),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 연구』 14, 한국어교육연구학회.
- 신소영·유승금(2020),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인문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양정아(2020),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정당화: 한국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현정(2017),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한국문화 교육 내용 분석 -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와 학부 교양 한국어 교재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65집, 국어문

학회.

정화영(2021),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한민족어문학』 94, 한민족어문학회.

최정순(2006),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박혜란 외(2019), 「Kolb의 경험적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한국 문화수업」, 『인문사회 21』 10-6, 인문사회21.